

夏季大學生 教養講座 開講 盛況을 이루다



順天金氏 中央 宗親會는 2002年 壬午年 夏季大學生 教養講座를 同源齋(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에서 鍾植 中央 宗親會 會長을 비롯한 會長團과 元老 宗親들이 大學 參與하여 盛大히 入所式을 舉行하였다.

金相焜 辯護士를 비롯한 順天 金門의 著名한 教授들의 名講義와 學生들의 眞摯한 授業 態度는 門中の 앞날을 더욱 밝게 하였다.

이번 教養講座는 歷史的 考察에 中點을 두었으며 文獻上에 記錄된 先祖任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늘을 찌를듯한 氣概와 松竹같은 곧은 節概를 가슴에 담았으며 우리의 뿌리를 알아리 새기는 大同譜의 重要성과 필요성을 배우고 名門家門의 正統禮儀 凡節를 理論과 實

習을 통하여 익히므로 順金家門의 子孫으로써의 矜持와 自矜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先祖님들의 그 崇高한 業을 우리 後世들이 잇어서는 않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또한 이번 教養講座에는 平素 남달리 崇祖精神과 敬老孝親 운동에 앞장서면서 夏季大學生教養講座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시는 (株)빙그레 會長 吳淵宗親은 間食(라면)과 飲料水를 보내 學生들을 激勵하였다.



▲ 夏季大學生 教養講座 修了式(2002. 8. 7)



자랑스런 順天 金門

橫城公 15世孫 明奎 울산광역시 政務副市長에 就任하다. 中央宗親會 鍾植 會長은 宗親들을 대신하여 花盆(蘭)을 보내 祝賀를 하였다.

- 주요 경력 -

- 경상남도 지방과장 • 경상남도 하동군수 • 경상남도 양산군수
- 경상남도 울주군수 • 경상남도 내무국장 • 경상남도 장승포시장
- 대화개발(주) 대표이사 •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울산광역시 남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울산광역시 행정동우회 회장

- 상 훈 -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 훈장

- ☑ 金柄軫(判事公 17代孫) 慶尙北道 道議員에 當選 (주)점촌유선방송 대표이사
- ☑ 金正熙(正郎公 20代孫) 海南郡 郡議員에 當選
- ☑ 金輔淵(判事公 16代孫) 碧蹄農業協同組合長 當選 高陽略友會長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十三期 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一項에 依據 二〇〇二年 第十三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 省略)

二〇〇二年 十月 五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 一. 日時 : 二〇〇二年 十月 三十日(水) 十一時
- 二. 場所 : 서울 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六四一三 삼성빌딩 二層 한길교회

電話 : 五四二一九五五一

전철 7호선 청담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회전 50m 또 우회전 7m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 〇二一四〇〇二五〇一一二

三. 參席範圍

- (一) 中央宗親會 全任員과 代議員
- (二) 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全宗親

四. 議案

- (一) 業務報告
- (二) 第十三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 (三) 第十四期 決算案 審議
- (四) 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 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倒着 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6次 大同譜編纂委員會

2002年 9月 27日 11時 第6次 大同譜 編纂委員會 會議
를 中央 宗親會 會議室에서 開會하였다.

이날 會議는 32名 委員中 24名이 參席하여 深度있는
討議를 거쳐 아래 事項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 아 래 -

-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입력한다.
- 2) 수단 접수는 금년 12월 31일 한 마감한다.



第6次 大同譜 編纂會議 開催

- 다 음 -

- 1. 序 文
- 2. 刊 行 辭
- 3. 凡 例

慕 先 錄

- 1. 顯祖 影幀
- 2. 顯祖 山圖
- 3. 先代 遺蹟
- 4. 上系 祖先
- 5. 世 德 錄
(1)世德錄序 (2)顯祖事蹟
- 6. 壬辰倭亂 有功祖先
- 7. 舊譜序文 및 凡例
- 8. 順天市建治沿革

孫 錄

- 1. 世 系 表
- 2. 上系孫錄 (1世 - 25世)
- 3. 默齋公派 (26世 - 以降)
- 4. 節齋公派 (")
- 5. 典書公派 (")
- 6. 判事公派 (")
- 7. 翊贊公派 (")
- 8. 藍浦公派 (")

- 9. 摠制公派 (26世 - 以降)
- 10. 御史公派 (")
- 11. 判書公派 (")
- 12. 監察公派 (")
- 13. 郡守公派 (")
- 14. 橫城公派 (")
- 15. 尙衣院公派 (")

參 考 錄

- 1. 譜 牒
(1)起 源 (2)種 類 (3)述 語
- 2. 上系考證資料
- 3. 族 親 關 係
(1)宗 親 (2)親 族 (3)計寸法 (4)行列字
(5)竊祖時享日
- 4. 儀 禮 文 例
(1)笏 記 (2)祝 文 (3)告由文 (4)上樑文
- 5. 高麗朝 官職表
- 6. 朝鮮朝의 制度
(1)學 制 (2)科 舉 (3)官 制 (4)官職表 (5)其他
- 7. 東西洋 年代 對照表
- 8. 跋 語
- 9. 任 員 錄

公 告

2002年 12月 31日 大同譜收單接受 마감

宗親 여러분의 적극적인 聲援에 힘입어 始祖이하 世系가 정연한 大同譜 編纂이 마무리 段階(9월 31일 현재 85.3% 접수)에 있어 編纂委員會議를 거쳐 위와 같이 마감하오니 未接受宗親께서는 서둘러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일

順天金氏 大同譜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 鍾 植

資憲大夫墓碑豎立告由祭 奉行

慶北地方 儒林人士와 300여 後孫들이 公의 遺德기리다



胄孫榮熙(中央宗親會顧問)

2002年 6月 23日(陰 5月23日) 11時 慶北地方 儒林 人士와 300여 後孫들이 雲集한 가운데 慶北 龜尾市 善山邑 山東面 栢峴 西峴山 墓所에서 墓碑豎立 告由祭를 嚴肅하고 敬虔하게 奉行하였다.

이날 告由祭 奉行은 初獻官에 金榮熙 胄孫, 亞獻官에 金相容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終獻官에 金斗熙 嶺南宗親會 顧問이 分獻하였고 執禮는 金亨在 橫城公派 總務, 祝은 金重容 仁同門中 會長이

分任하였다.

中央宗親會 鍾植會長을 비롯하여 嶺南地域宗親會 橫城公派宗會 靑松門中 그리고 儒林을 비롯한 各界各層에서도 追慕 花環과 追慕電報를 보내왔다.

이날 參禮한 人士들은 한결같이 公의 遺德과 崇高한 遺志를 기리고 繼承 發展시킬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으며 특히 사위들과 外孫들까지 모두 參禮하여 告由祭가 더욱 돋보였으며 他 門中에 龜鑑이 되었으며 消滅해가는 忠孝精神을 일깨우는 등불이 되었다.

가정에 기거하면서 일을 처리함에 몸을 다스림이 검약하여 사치를 일삼지 않았다

분수에 편안하여 스스로 즐거워 하시며 금오산 서쪽 임천(林泉)에서 여생을 마치니 백현동 서현(西峴)산기슭은 공의 유탁인데 아직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잔약한 후손의 정성이 박한 탓이었나이다. 이에 아름다운 돌에 글을 새겨 감히 그 덕을 고하나이다.

팔대손 불초 영희 삼가짓고 해석하다.



資憲大夫 墓所全景

資憲大夫 豎碑告由文

八代孫 不肖 榮熙 謹述

恭惟府君 天賦挺特 性之如水 心水如玉 考悌爲本 質實之德 教子義方 對族敦睦 居家處事 律身儉約 不事奢靡 安分自樂 終老林泉 金烏山西 栢峴西峴 公之幽宅 墓儀未伸 孱孫誠薄 刻此貞珉 敢告厥德

자헌대부 수비고유문 해석

공손히 생각하니 부군께서는 천부적으로 특별히 뛰어나셨다. 성품은 담백(淡泊)한 물과 같고 마음은 온윤(溫潤)한 옥과 같았다. 효성과 우애를 근본으로 하여 질박하고 성실한 덕성을 갖추셨다. 의로운 방도로서 자식을 가르치고 도타운 화목으로 친족을 대하셨다.

순천 김씨 부산종친회 현판식

부산종친회가 창립된 후 이십여년이 지났으나 사무실과 현판이 없어 모든 회원들이 아쉬워하던 중 종친회 일이라면 대소사를 막론하고 언제나 솔선수범 참여하는 양경공 23대손 유동간사님께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현판을 제작 7월 15일 우영 회장님, 병기, 상기, 인섭 고문님의 여럿 종친이 참석 두남 총무 가계에 현판식을 거행하고 월례회 겸 축하 만찬회를 가지니 모든 종친이 화기애애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로 효친의 마음이 지극한 유동 종친께서 손수 정성 들여 만든 지팡이를 병기 어른께 드리니 모든 회원들은 기립박수로 건강을 기원하며 종친회의 결속과 발전도 함께 빌었다.



↑釜山宗親會 懸板式



지팡이를 증정하는 유동 宗親 →

우리나라 最初로 戰船에 砲를 설치한 金舜皐

공의 治績

文獻 考察

먼저 각종 문헌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 『여지도서(輿地圖書)』 〈尙州鎮 尙州牧〉 《人物》 조에는, “나이 8세에 낙동강 위에서 놀다가 얼음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인들이 언덕 위에서 여울(沿灘)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소리쳐 살아 나왔다. 모두 놀랐으며 그리고 장수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병조참판에 이르렀으며 평양군에 봉해졌다”(年八歲 遊江上瀉氷窟中旬旬而行得出發里許灘下人 皆驚異之及長 登武科 官至兵曹參判 封平陽君)

- 『교남지(嶺南誌)』 (卷8) 〈尙州郡〉 《人物》 조에는, “순천인으로 좌의정 승주(承霽)의 후손이다. 무과에 들고 중주부 지사(정2품)에 오르고 평양군에 봉해졌다. 병술의 책략(策略)이 있었다. 일찍이 윤원형을 배척하려다가 10년동안 유배되었다.”(金舜皐 順天人 左相承霽后 武知中樞 封平陽君 有兵略 嘗斥尹元衡被謫十年)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권4) 《尙州》 조에는, “김순고(金舜皐). 자(字)는 우경(虞卿)이고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평양 부원군 승주(承霽)의 후손이다. 기유년(1489, 성종 20)에 태어나 을해년(1515, 중종 10)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병자년(1516, 중종 11)에는 중시(重試)에 들어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하였다.

5군(郡)의 부사(府使), 삼도수군절제사, 5도(경상좌·우도, 평안도, 함경북도, 충청우도)의 병마절도사(중2품), 한성부의 좌·우윤(중2품), 동지부사로 청(淸)나라에 다녀 왔으며, 포도대장(중2품), 오위도총부의 부총관(副總官)·중2품, 훈련관 지사(知事)·정2품, 비변사 제조(提調)·정2품, 중주부 지사(知事)·정2품)에 이르렀으며, 평양군(平陽君)에 습봉(襲封)되었고 갑술년(1574, 선조7)에 졸하였다.

중종때 양계(兩界, 평안·함경도)에 명하여 여연군(閔延郡) 등 4군(郡)에서 살고 있는 오랑캐를 몰아 내는데 두 번이나 파견되었다. 공은 먼저 도로를 잘 살펴 보도록 하였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갈 때에는 선봉(先鋒)이 되었다. 오랑캐의 소굴을 쳐서 불태우고 철거한 것이 50여 구역에서 사도 잡고 목을 벤 것이 심히 많았다.

마침내 대궐로 온 후에 벼슬에 올랐다. 또한 돌아와서는 모든 장수가 다 패배한 일로 두려워 하여 물러나고 귀양을 가고 형벌을 받았으나 공은 홀로(세운 공이 많아) 일을 면하였다. 마땅히 긴요한 사람으로 되었고 사사로움 없이 공변(公辨)된 일을 시키었다.

왜(倭)가 (제포에서) 변고(變故)을 일으키자 화랑(花梁)에 수영(水營)을 설치할 때에는 (공에게) 처음부터 노숙(老宿)한 장수를 가리어 무고(武庫)를 만들도록 하였다. 서울 한강에 전선(戰船)을 건조할 때와 서울지방(畿甸)에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세울때에도 다 공으로 하여금 하였다.

(공은) 은혜와 위엄이 가는 곳마다 성적을 현저하게 더욱 빛냈다. 가덕(加德)에 영(營)을 설치함은 중대한 기밀로서 웅천(熊川)의 해중(海中)에 개축하고 천성(天城)은 둘레가 좁아 두려우므로 탕자나무를 심어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선박을 감추도록 한 것은 다 공의 건의로 연유될이다.

또한, 왜구가 능히 철환(鐵丸)을 사용함을 우려하여 전함(戰艦)의 좌우에 비뢰를 설치하고 (전함의) 머리와 꼬리에는 포(砲)를 설치하여 이군의 배에 포를 적재함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흥부에 수재(水災)로 연이어 피해를 입자 조정에서는 우려하여 임거도(仍巨島)의 비민(俾民)들로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 건너에 경작지를 개간함에 공을 파견하여 규범에 이르도록 하고 보살피게 하였다. 그곳은 목조(穆祖)께서 살게 된 땅이고 또한, 목책은 영구히 오래가는 계획이 아니라 하여 부사(府使) 김수문(金秀文)과 더불어 힘을 다해 올바르게 하였고 나아가 석축(石築)을 더 하였다. 불과 수 개월에 성(城)을 견고하게 갖추었다.

앞서서 공은 윤원형(尹元衡)이 시기함을 보고 사람들은 원형(元衡)이 계승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 거짓으로 착서하여 공을 이침하는 말로 퍼뜨리기를 '새로 쌓은 성(城)은 원수를 불러 들일 뿐'이라 하였다. 원형(元衡)은 삼사(三司, 司憲府·司諫院·弘文館)에 시키기를 (공에게) 큰 죄를 청하기에 이르러 강계(江界) 지방으로 유배(流配)를 시키었다.

호남지방에 변보(邊報)가 있을즉 지난 날 귀양살이를 하던 곳으로 차례로 보내어 쫓으며 급히 서울로 불러 예전과 같이 군무(軍務)를 맡긴 고로 후에 임거도(仍巨島)의 사건을 논하여도 조금도 분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뜨거운 국물에 데면 냉 국물도 불려서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공은 말하기를 '이 마음이 참으로 잘못된 일이 있어 아홉 번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공의 친구(方好義) 또한 오랑캐의 진지를 철거한 것에 비유하여 말하는 자들이 오랑캐를 두둔한다고 공격하는바 원망하면서 나(方好義)는 지금부터 국사(國事)에 대하여 아무런 뜻이 없다고 말하자, 공은 '남의 신하로서 나라를 위하는 바가 마땅히 끝과 시작을 어찌 가히 한번 쪼개어 켜다고 하여 중간에 그칠수 있겠는

가라고 말하여 온 죄증이 다 공경하며 깨달았다. 공은 키가 9척 3촌이고 용모와 거동이 아주 걸출하여 보는 자가 모두 큰 그릇인줄 알았다.

생략하여 말하기를, 병법(兵法)을 시험하지 아니한 것은 기이함이며 나라의 복이라, 뜻은 늙어도 굽히지 아니함이며 충성이 확고함이었다.

(金舜皐 字虞卿 順天人 平陽府院君 承霽後 成宗己酉生 乙亥武科 丙子重試 歷宣傳官 五典郡府 三制水關 五除兵使 漢城左右尹 冬至府使 捕盜大將 副總官 知訓練 備邊提調 至知中樞 襲封平陽君 宣祖甲戌卒 中廟命兩界 驅逐胡人 肯居閔延四君者再遣 公先審道路及軍行爲先鋒 携虜巢焚撤 五十餘區 俘斬甚夥 遂殿後且載且還諸將 皆以怔忡 退彼譴謫 公獨以功免事 當肯紫心 使公辨之 自倭變始 葦花梁爲水營 始揀宿將提調武庫 京江創戰船 畿甸立舟師大將 皆使公爲之 恩威並行聲績俱顯 加設加德 天機於熊川 海中改築 天城繞惶 枳設柵藏船 皆由公建議 且慮倭寇能使鐵丸 就戰船左右置輪 首尾設砲 我之有船砲 自公始 慶興連被水災朝廷憂之 設木柵於仍巨島 俾民越江耕墾遺公 以規之至則見其爲 穆祖肇迹之地 且木柵非久遠之圖 與府使金秀文 竭力經始 就加石築不數月 城宇俱成 前時 公見猶於尹元衡 人有承望元衡風旨責 公取唱唱言 新成啓誓 元衡職三司 至請大辟 竟配江界 及湖南報變 卽謫所傳遞 召至京預 策軍機如故 後論 及仍巨事猶憤切不置人曰 不忠熱羹耶 公曰 此心耿耿 九死靡悔 公之友亦 有以諭撤屯湖爲言者 所攻對曰 吾自今無意國事矣 公曰 人巨爲國 所當終始 豈可以一折中沮乎 一座讒讒 公身長九尺三寸 容儀魁傑 見者知其壞器 銘銘曰 韜不試奇兮 國之福志不伏老兮 忠之確)

다음으로 향지(鄕誌)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본다. 상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친향사(私撰鄕史)인 창석(蒼石) 이준(李峻)이 1617년(광해 9) 정호선(丁好善) 목사의 청에 의하여 편찬한 상산지 창석본(蒼石本)과 1749년(영조25)에 이협(李峽) 목사의 권(勸)에 따라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이 속찬한 상산지 청대본(淸臺本), 그리고 1928년 홍의식(洪義植) 군수의 권(勸)에 의하여 향내의 유지(有志)들이 속편한 증보판(增補板) 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 『상산지(商山誌 蒼臺本)』 《인물(人物)》 조에는 “김순고, 수홍(粹洪)의 아들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가 되고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졌다. 어릴 때 잘못하여 낙동강의 얼음 구덩이에 빠졌다. 언덕위에 있던 종(奴)은 통곡하며 소리치기를 '물가를 따라 내려가면 나올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이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지위가 2품이 되었고 나이 80에 들었으니 수요(壽夭·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의 화(禍)와 (福)은 분수로 정해 있어 죽음의 땅에 두더라도 죽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金舜皐 粹洪之子 由武舉 爲兵使 封平陽君 少時 謬陷洛江水窟中 有奴在岸 上疾號 曰可沿灘去出 如其言得活 常語人 曰吾脫身水窟中 位躋二品 年享入耄 乃知壽夭禍福有定 置之死地而不死也)

- 『상산지(商山誌 蒼臺本)』 《인물(人物)》 조에는 “김순고, 수홍(粹洪)의 아들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중주부의 지사(정2품)에 올랐고,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졌다(金舜皐 粹洪之子 武科 官知中樞 封平陽君)

- 상산지(商山誌·增補) 〈총묘(塚墓)〉조에는 “김순고의 묘는 백원 대사동에 있다”(金舜皐墓 在白原大寺洞)

- 또한, 같은 책(卷 2)의 〈인물(人物)〉조에는, “김순고, 수홍(粹洪)의 아들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졌다. 어릴 때 잘못하여 낙동강의 얼음 구덩이에 빠졌는데 종(奴)이 언덕위에서 여울(沿灘)에 가면 나올수 있다고 소리치니 이 말을 따라 가서 살아 나왔다. 그 후로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음 구덩이에 빠져 나와서 벼슬이 2품(二品)이요, 아이가 80이 넘었으니 수요(壽夭)의 화복은 분수로 정해 있는바 사지(死地)에 있더라도 죽지않는다고 하였다. (新增) 일찍이 윤원형을 배척하려다가 10년동안 유배되었으며 매양 군(軍)의 일들을 판단하는데 사람들은 마원(馬援)과 조충국(趙充國)에 비교했다”(金舜皐 粹洪之子 由武舉 爲兵使 封平陽君 少時 謬陷洛江水窟中 有奴在岸上疾呼 曰可沿灘去出 如其言得活 嘗語人 曰吾脫身水窟中 位躋二品 年享入耄乃知壽夭 禍福有定分 置之死地而不死 (新) 嘗斥尹元衡被謫十年每判兵事 人比之馬援趙充國)

- 상주목읍지(尙州牧邑誌) 〈인물〉조에는 “김순고, 수홍(粹洪)의 아들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고 병조참판에 올랐으며 평양군(平陽君)에 봉해졌다. 일찍이 윤원형을 배척하려다가 10년동안 유배되었으며 매사 병무(兵務)를 판단하는데 사람들은 마원(馬援)과 조충국(趙充國)에 비교했다.”(金舜皐 粹洪之子 武科 歷兵使 至兵參 封平陽君 嘗斥尹元衡 被謫十年 每判兵事 人比之馬援趙充國)

忠을 實踐한 業績

가) 왜구(倭寇)의 침입 사전 대비 : 1532년(중종 27, 壬辰)에 왜(倭)가 제포(濟浦)에서 변(變)을 일으킬 때 공은 관직이 경상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정3품, 당상관)에 재직중이었다. 이 왜변(倭變)이 있을 후부터는 해안에 대한 방어를 더욱 대비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화랑(花梁)에 수영(水營)을 설치할 때 공이 밀어 무고(武庫)를 넓혀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였다고 한다.

나) 한강(漢江)에서 전선(戰船)의 사용 감독 : 해전(海戰)에서 전선(戰船)을 사용한 당연지사(當然之事)이거나 강(江)에서의 전투 경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강(漢江)에서도 해전(海戰) 못지 않게 훈련을 강조하여 전선(戰船)을 사용함에 공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다)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의 이전 건의 : 경상좌수영은 울산에 있던 것을 몰운대(沒雲臺) 북쪽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부산 가덕진영(加德鎭營)은 웅천(熊川) 해중(海中)으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다. 예로부터 가덕도 부근은 일본 「쓰시마」 섬에서 부산과 진해쪽으로 침입을 위해서는 이 곳이 바다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곳에 영(營)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건의함은 당시 국가의 중대한 기밀일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상 방어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할 중대한일인 것이다. 이는 빈번하게 침입하던 왜구(倭寇)의 사전 경계와 해상방어의 계획이었고 전략가로서의 훌륭한 식견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함포성(含浦城)의 확장(擴張)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고려시대에 쌓은 성으로, 경상우도 병영성(兵營城)의 터이다. 공은 1430년 이 성(城)이 너무 좁아서 더 넓히도록 하고 성의 변두리에 탕자나무를 심고 책문(柵門)을 만든 다음, 선박(船舶)을 저장하게 하였는데 이곳은 군사 요충지로서 중요한 지역임을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이는 해상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은폐(隱蔽)·엄폐술(掩蔽術)로 아주 뛰어난 책략이라 할 수 있겠다.

마) 우리 나라 최초로 전선(戰船)의 수미(首尾)에 포(砲) 설치 : 공은 水軍에 관심이 많아 왜구(倭寇)가 탄환(彈丸)을 사용할까 염려하여 전선(戰船)의 좌우에도 바퀴를 달아 막도록 하였고, 머리와 꼬리에는 제승방략(制勝方略)을 그려서 붙이게 하였으며, 또 전선(戰船)의 안에서 양쪽의 구멍으로 적(敵)들에게 포(砲)를 달아 쏘도록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의 설계로서 지금까지 합있게 되었다. 또한, 왜구가 능히 철환(鐵丸)을 사용함을 염려하여 전함의 좌우에 바퀴를 설치하고 머리와 꼬리에는 포(砲)를 설치하여 이군의 배에 포를 적재함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부터 왜구가 철환을 사용함을 염려하여 전선의 좌우에 바퀴를 달아 철환의 직사(直射)를 방지하였고, 특히 전선의 좌우에 바퀴를 달아 철환의 직사(直射)를 방지하였고, 특히 전선의 앞뒤에 포를 배치한 것은 조선에서는 최초다. 이는, 전술면에서도 뛰어났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임진왜란 때의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군선인 판옥선(板屋船)·사후선(伺候船)·거북선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훌륭한 사실이 향지(鄉誌)나 순천감세 족보(族譜)에도 기록이 없다. 다만, 이 제신(李濟臣)이 찬(撰)한 묘갈명(墓碣銘)과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에만 치적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아쉬운 점은, 전선의 규모·형태·성능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 이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란전후 전선(戰船)들의 상관관계 등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후대에 살고 있는 상주인으로서의 자량이 아닐 수 없지만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바) 백성을 위한 농본(農本)의 업적 : 1547년(명종 3) 공은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으로 재직중이었다. 이 해에 경흥부(京興府)에 화재(火災)가 잇달아 일어나자, 조정에서 그 지방 백성들 생활에 대해 매우 걱정하였다. 목책(木柵)을 잉거도(仍巨島)에 설치하여 건너편 강물을 끌어서 농지에 이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공을 보내 잘 만들도록 하였다. 공은 부임한 즉시 그 지대를 돌아 보았는데 거기는 목조(穆祖)께서

살던 곳이었고 또 목책이란 영구한 계획이 못된다하여 부사(府使) 김수문(金秀文)과 더불어 힘껏 경기(經紀)하여 석랑(石梁)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도 역시 찬동하여 조력(助力)하게 되자 몇 달이 안되어 설계대로 다 이루어 졌다고 한다.

사) 감직한 관료생활 : 공은 47년 동안이나 나라를 위해 변함 없는 충성을 다해 왔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는 대우를 특이하게 하였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반드시 공으로 하여금 판결 하도록 하였다. 또한, 1544년(인조 1)에 공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중국을 다녀 왔을때에도 당시 예부주사(禮部主事)의 말에 "전 번에 왔던 사신은 은자(銀子)를 뇌물로 받친 일이 있으니 전하(殿下)께 여쭙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시오"라고 하자 공은 중종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는 윤원형이 한 것이었지만 공은 굴하지 않았다. 당시 윤원형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이었으므로 감히 아무도 말을 못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또한, 공은 윤원형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모략을 당했을 때 제재(諸宰)들이 이르기를 "뜨거운 국물에 데면 냉 국물에도 불려서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어도 조금도 분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항상 대답하기를 "이 몸이 참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아홉 번 죽는다 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한 번 귀양살이를 함에 있어서라?"라고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의 동료 방호의(方好義)는 탄식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국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하였으나, 공은 그에게 크게 꾸짖기를 "남의 신하로서는 국가를 위해 시종(始終)을 꼭 같이 해야지 어찌 한 번 좌절당했다 하여 그만 둘 수 있겠느냐"하므로 온 좌중(座中)이 다 공의 말이 옳다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공은 감직하면서도 인재를 등용함에도 매사에 신중하였다.

이) 무종(武宗)으로의 추앙 : 공은 일찍이 훈련원(訓練院) 교장(教場)이 보수(步數)는 짧고 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늘 남의 집들을 지나가게 되고 또, 눈 앞에 보이는 나쁜짓들이 많다하여 새 축대를 훈련원 북쪽으로 물려 쌓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후부터 시예(試藝)할 때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영상(領相) 상진(尙震)은 일찍이 압록강 기에다 장성(長城)을 쌓아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20여 년전에 수군의 준비에 관심이 높아 전선(戰船)의 좌·우에 바퀴를 달아 왜구로부터 철환(鐵丸)의 직사를 방지하였고, 특히, 전선(戰船)의 앞·뒤에 대포(大砲)를 설치함은, 이것은 우리나라 해군사에서 최초의 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수군(水軍)의 주요 전투선이었던 판옥선(板屋船)·사후선(伺候船)·거북선등의 전함(戰艦)과 공이 전선(戰船)에 대포를 설치한 전후의 상관관계도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새(西塞)를 보장하도록 하려고 조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였으나 응하나 자가 적으므로 늘 탄식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김평양(金平陽)이 오직 국사에 정성껏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시키면 얼마 걸리지 않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연수(連帥)로부터 옛날 편비(編裨)를 거느리고 온갖 지휘를 받으면서도 오직 공만을 무종(武宗)으로 추앙하였다.

- 본문을 보내주신 경북 상주시 농림건설국장 최연 종친과 본문을 쓰신 상주향토문화 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상주열 찾기 책임연구원이신 郭熙祥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世紀의 順金 家乘出現

철원공 19世孫 명환 小考

하도 먼 옛날에 실종된 17世系祖의 諱字가 적힌 順金家乘이 判事公派 昌淵 종친집에서 나왔다.

池塘에 핀 연꽃처럼 청순한 그 이름들을 필자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전 文獻無徵 기몽세계 따위의 불손한 말들은 접어야 하겠습니까. 順天金氏 世系 家乘(表紙) 金氏世系 一世 金賜晉에서부터 六十二世 允仁典客公까지의 내용이다.(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면상 생략) 이는 典客公 12세손 將仕郎 錫後公(丁未年 1607)이 34세 되던해 辛巳年(1641)에 작성한 것으로 되었다. 이 家乘과 똑같은 내용이 陝川公派 海南派世譜에 수록된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昇平金氏, 新平金氏에서도 이상 順金上中系世에 준한 족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가까운 門中이나 멀게는 他 金氏에서도 찾을 수 있는 順金世系의 考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64년 刊行한 甲申譜 序文에 鼻祖이하 17世系祖 諱字를 고스란히 빼 버리고, 여처구니 없는 甲申譜를 만들고야 말았다. 緒論한 바와 같이 考證은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無徵이란 단어나 속어 사전에도 없는 희한한 문구를 만들고 꾸민 족보는 온 世孫들에게는 속임수가 되는 반면에 17세계조에 대하여서는 모독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술 더하여 記夢世系 云云, 귀

신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니 온 종친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이 아프다. 사람은 죽어서이름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수단 방법의 하나로 족보를 만들고 대대로 수천년 수만년을 되풀이 하는 輪廻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이렇듯 끈끈한 정이 담겨 있어야 甲申譜에 祖上의 열입곱 분의 이름이 누락된 족보는 만들수도 없거니와 만들지를 말았어야 했다. 그나마 제대로 꾸민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족보를 만든 조상들에게 원망이 서린다.

예컨대 順金의 一世는 의당 諱摠이시다 허나 甲申譜에는 允仁一世로 삼았단다. 그렇다면 一世 摠始祖는 無世인가 이토록 始祖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꾸민 甲申譜를 본받아 네번씩이나 꾸민 족보를 받아 보고도 말한마디 하는 사람없으니 한숨이 짙로 난다. 어차피 允仁一世로 시작한 족보하면 의당 允仁一世를 기준으로 몇대손 아무개가 序文을 엮는 것이 定石이라고 본다. 하지만 允仁一世는 아랑곳 없이 襄景公 11대손 致祥謹序는 甲申譜 간행정신을 완전 상실이라 하겠다. 이것은 전객공이 양경공의 관작보다 낮다고 해서 典客公을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보아 입맛이 소태처럼 쓰다. 이런 식으로 丁卯譜, 丁酉譜, 甲子譜 모두 양경공 몇대손 아무개가 序文을 撰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일이다. 이 외에도 換祖易父라던가, 訂誤表가 한권의 冊으로 나왔다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甲申譜 이후 네번씩이나 꾸민 족보에 한결같이 文獻無徵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譜上에 누락시킨 17世孫의 祖上을 여러 系派에서 발굴하여 世譜에 올린 것을 記夢世系라고 불아 붙이는 종친이나 역대 잘못 꾸민 족보편찬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가 바로 잡을 수 없나 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써본 글이다.

교양강좌를 다녀와서...



나는 순천 김씨다 세상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만도 아닌 20년 동안 살면서 순천 김씨를 친척들을 제외하고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문득 친구들끼리 본가 얘기를 하면 난 대답을 꺼려했다. 이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같은 종친이 없다는 것에 괜히 움추려 들기 일쑤였고 얘기한다 해도 친구들은 웃는 것이 대다수였다. "뭐? 순천 김씨? 난 그런 김씨 침 들어본다." 순천 김씨가 있다고 뻑뻑 우겨도 보았지만 친구들은 귀 기울일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19년을 살아오다 난 내 인생에서 작은 충격을 겪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같은 과 같은 반 친구중에 순천 김씨가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와 나는 서로 반갑기도 하지만 순간 당황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 친구 역시 살아오면서 같은 순천 김씨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했다. 난 그 친구를 알게 되고서 더욱 내 본가에 대해 궁금해졌다. 내가 아는 것과는 그저 6진을 개척하신 김종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순천 김씨라는 거 밖에 없었다.

이윽고,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여행도 가고 싶고 견문도 쌓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종친회 교양강좌라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다. 사촌형도 4년전에 순천에 교양강좌르러 들으러 갔다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다. 난 전부터 궁금히 여겨왔던 우리 본가와 머리도 식힐 겸해서 순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5시간 이상 되는 지루함을 참으며 나름대로 이것저것 상상을 해 보았다. 내 나이 또래도 많이 올 거 같고 굉장히 재미있을 거 같았다.

동원재에 도착하여 하물 보내고 음날부터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원래는 4박 5일로 일정이 잡혀있지만 부득이 하게 2박3일로 변경되었다. 스케줄을 중인 만큼 분명히 못 보고 못 배운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내 삶에서 이번 2박3일이 분명 남달랐고 가치가 있었다. 많은 값진 것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껏 잘 모르고있던 나의 뿌리라던가 예법, 족보 찾기 그리고 나와 2박3일동안 함께한 형님들과의 끈끈한 우애도 있지만 가장 값진 것은 나의 조상 즉 내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난 순천 김씨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순 없다. 난 순천 김씨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5 대우사원주택 31동 205호제17기 김 규 호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2년 5월 30일 ~ 2002년 9월 24일

부회장

- 김행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2-4 청학아파트 C-403 납2년7월29일
- 김재문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350 삼성한국형아파트 108-801 납2년8월16일

운영위원회

- 김동철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286-20 납2년6월17일

고문

- 김채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평화아파트 A-307 납2년7월4일
- 김철희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224-10 8/9 납2년7월19일

이사

- 김영창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45-14 납2년6월3일
- 김정록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동 289-169 납2년6월7일
- 김길주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399-1 납2년6월7일
- 김순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5-16 납2년6월20일
- 김동석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121-23 거산아파트 120-605 납2년7월10일
- 김대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07 현대아파트 120-605 납2년7월10일
- 김길용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545-8 납2년7월11일
- 김찬정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269 납2년8월6일
- 김상목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477 납2년4월26일

대의원

- 김팔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09-1502 납2년7월3일
- 김상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40-8 현대아파트 101-508 납2년7월8일
- 김수영 충청북도 성주시 상당구 우암동 176 납2년7월10일
- 김진영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직천1리 297번지 납2년7월12일
- 김장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590 납2년7월15일
- 김정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72 금호타운 103-1404 납2년7월31일

친척

- 김도균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364-8 9/3 납2년5월30일
- 김익훈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601-507 납2년5월30일
- 김지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20 한강매션 26-102 납2년5월31일
- 김동익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2379 21/2 납2년5월31일
- 김동섭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291-3 납2년6월3일
- 김동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921 납2년6월8일
- 김선균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그랜드아파트 104-705 납2년6월15일
- 김영섭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37-468 납2년6월20일
- 김병근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39-56 11/2 납2년5월26일
- 김선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205-901 납2년6월24일
- 김한연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264-53 영신빌라301 납2년6월25일
- 김영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3 동아아파트 1089-2303 납2년6월26일
- 김학이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89-1용마아파트 A-505 납2년6월26일
- 김인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219 납2년6월29일
- 김춘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433 납2년6월28일
- 김용석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읍지리 936-2 납2년6월28일
- 김형호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92 선경아파트 10-504 납2년7월3일
- 김동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동 1471-21 납2년7월3일
- 김상태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마평리 399 납2년7월3일
- 김성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709-1003 납2년7월4일
- 김동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13 납2년7월4일
- 김정내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안정리 628 납2년7월3일
- 김갑균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315-5 납2년7월3일
- 김성연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20-2 동서그린맨션501 납2년7월4일
- 김정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913 납2년7월4일
- 김진오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진주아파트 103 납2년7월4일
- 김철영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봉리 납2년7월4일

| | | |
|-----|------------------------------------|-----------|
| 김동한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203 | 남 2년7월4일 |
| 김연우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83 | 남 2년7월4일 |
| 김익환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죽정리 254 | 남 2년7월4일 |
| 김보흥 |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384-5 | 남 2년7월4일 |
| 김진환 |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 남 2년7월4일 |
| 김학연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1리 성우빌라302 | 남 2년7월5일 |
| 김세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12-1 | 남 2년7월8일 |
| 김형욱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주거환경개선지구6-1 하화빌라 B01 | 남 2년7월8일 |
| 김동연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대림A101-1104 | 남 2년7월9일 |
| 김영철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812 | 남 2년7월8일 |
| 김영한 |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굴리 520-18 아남빌라가동 401 | 남 2년7월8일 |
| 김윤재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신2리 | 남 2년7월8일 |
| 김재열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거차 | 남 2년7월8일 |
| 김경철 | 대구시 동구 효목1동 143-11 효성어린이 | 남 2년7월8일 |
| 김수용 |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135 | 남 2년7월8일 |
| 김성춘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61-5 | 남 2년7월9일 |
| 김석환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수양리 | 남 2년7월8일 |
| 김동우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1리 305 | 남 2년7월8일 |
| 김철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0 한강아파트 05-1308 | 남 2년7월10일 |
| 김관성 | 서울시 중구 흥인동3-4 우일타운 1304 | 남 2년7월10일 |
| 김기원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2리 890 | 남 2년7월8일 |
| 김희은 |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9-20 | 남 2년7월9일 |
| 김광석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145-4 | 남 2년7월9일 |
| 김현희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35-3 | 남 2년7월15일 |
| 김국영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안인리 81-5 | 남 2년7월12일 |
| 김대훈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320-1105 | 남 2년7월15일 |
| 김병환 | 대구시 서구 중리동 중리주공아파트 23-307 | 남 2년7월11일 |
| 김정수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 남 2년7월11일 |
| 김옥배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남하리 | 남 2년7월11일 |
| 김동일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35-11 | 남 2년7월11일 |
| 김영철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04 | 남 2년7월11일 |
| 김철원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유동리 668 | 남 2년7월10일 |
| 김동욱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3리 | 남 2년7월10일 |
| 김천연 | 울산시 중구 태화동 426-20 | 남 2년7월10일 |
| 김중희 | 광주시 서구 농성동 삼익아파트 1-207 | 남 2년7월10일 |
| 김길원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산 11 | 남 2년7월10일 |
| 김익희 | 경기도 의정부시 가동동 3동 692-16 | 남 2년7월18일 |
| 김용기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497-1 | 남 2년7월15일 |
| 김관형 | 대전시 대덕구 와동 현대아파트 103-904 | 남 2년8월2일 |
| 김동섭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신일아파트 508-1403 | 남 2년8월2일 |
| 김영학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2-66 1055-19 | 남 2년8월2일 |
| 김상실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355-5 | 남 2년7월31일 |
| 김상우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녹곡1리 991 | 남 2년8월2일 |
| 김성희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2롯데아파트 102-1001 | 남 2년8월2일 |
| 김창호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 남 2년7월24일 |
| 김동직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291 | 남 2년7월25일 |
| 김덕연 | 대전시 서구 둔산동929 둔산사학연금회관9층 | 남 2년7월25일 |
| 김병문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우너리 167 | 남 2년7월25일 |
| 김중돈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532-10 | 남 2년7월26일 |
| 김중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제2차고속아파트 1212 | 남 2년7월29일 |

| | | |
|-----|---------------------------------|-----------|
| 김성원 | 대구시 북구 관음동 182-1 정우빌라 B-301 | 남 2년7월29일 |
| 김해연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대림2차 202-304 | 남 2년7월29일 |
| 김복산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2반 | 남 2년7월24일 |
| 김상욱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4리 51-9 | 남 2년7월30일 |
| 김용진 | 대전시 서구 내동 코오롱아파트 8-306 | 남 2년7월30일 |
| 김중환 |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53-3 | 남 2년7월30일 |
| 김병철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1리 769 | 남 2년7월25일 |
| 김인희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대림경동아파트 101-306 | 남 2년7월29일 |
| 김한태 |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청명마을 건영421-301 | 남 2년7월29일 |
| 김동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04-1 | 남 2년7월26일 |
| 김희남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2번빌라2-202 | 남 2년7월29일 |
| 김성희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3리 산49 | 남 2년7월31일 |
| 김중권 |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삼호아파트 104-801 | 남 2년7월31일 |
| 김상현 | 울산시 중구 반구동 774-6 | 남 2년7월29일 |
| 김인호 | 부산시 동구 좌천1동 798-61 3/4 | 남 2년7월31일 |
| 김동규 |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57-103 극동아파트 2-208 | 남 2년7월23일 |
| 김중호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542-23 42/1 | 남 2년8월2일 |
| 김중석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죽정리 253 | 남 2년8월2일 |
| 김좌섭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외삼2리 698 | 남 2년8월7일 |
| 김정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격1동 674-14 | 남 2년8월6일 |
| 김병근 |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39-53 11/2 | 남 2년8월5일 |
| 김한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 201-3 | 남 2년8월8일 |
| 김서연 |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90-53 동신수퍼 | 남 2년8월19일 |
| 김윤일 |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434-12 3/1 | 남 2년8월28일 |
| 김재근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사정리 59 | 남 2년8월26일 |
| 김영락 |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43-8 | 남 2년8월29일 |
| 김길정 | 대전시 공구 삼성동 307-3 | 남 2년9월3일 |
| 김동호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201 삼익아파트 별방어린이집 | 남 2년9월3일 |
| 김동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햇빛마을 11-1004 | 남 2년9월5일 |
| 김명열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82 102호 | 남 2년9월24일 |
| 김근호 |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995-3aid아파트 2-205 | 남 2년9월19일 |

廣 告

順天金氏 中央宗親會의 無窮한 發展과 大同譜 編纂을 祝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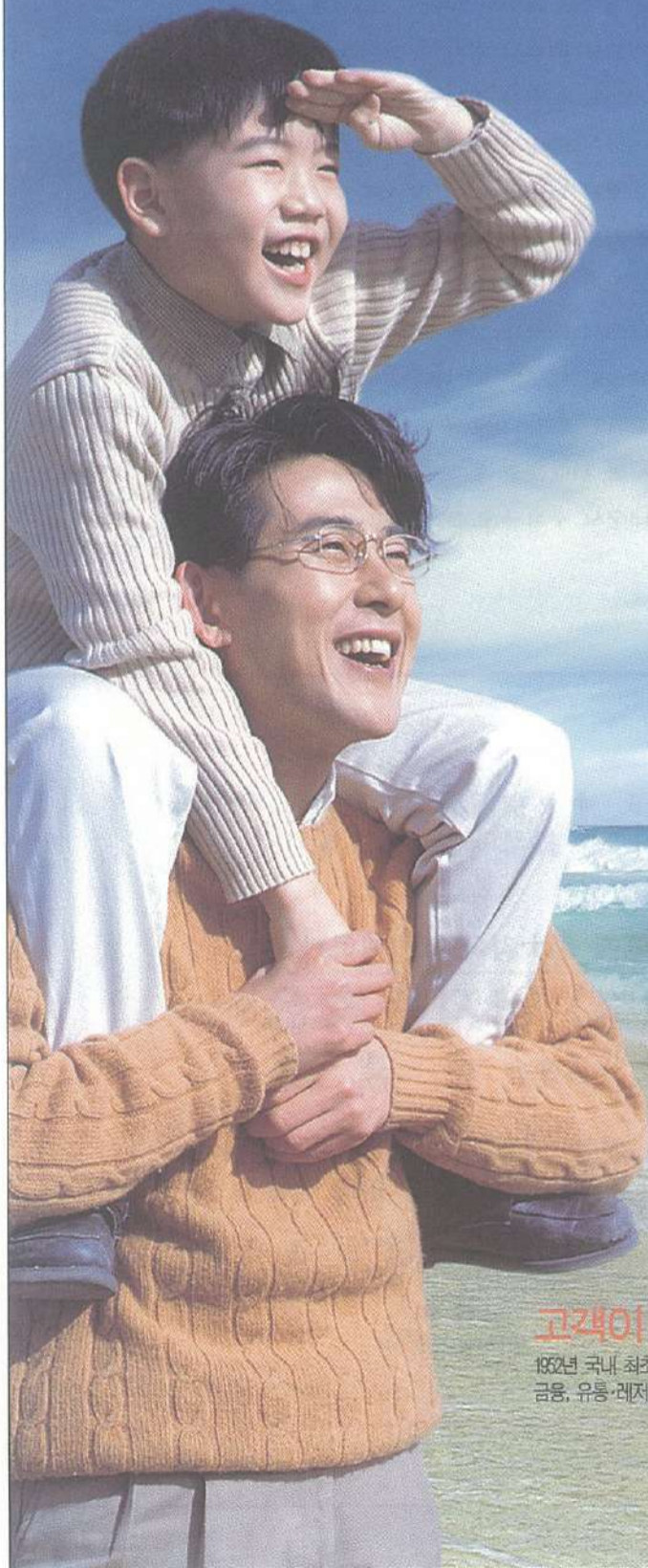
國內 最大김치 專門메이커
(株) 양지은食品
 代表理事 金 建 鎬

전화 : (02) 430-0231~8
 FAX : (031) 764-4955





멀리 보고 준비하는 기업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행복해지는 더 환한 세상, 한 걸음 먼저 한화가 열어갑니다

1952년 국내 최초의 화학산업 개척에서 한 발 앞선 IMF 극복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다가올 미래를 기다릴 때 한화는 한 걸음 먼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금융·유통·레저·신기술을 3대 축으로 더 강하고 더 부드럽게 거듭나는 새 한화 - 늘 멀리 보고 준비하는 자세로 한국경제의 새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인테리어 名家
한화종합화학
www.hicc.co.kr